

韓国語教育におけるテキストとしての韓国小説とその表現(其の二)

Korean Novel and the Expression as Text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2)

辛 大基

SHIN Daiki

要旨 韓国語小説における文章の特徴に関して、前節までの考察によると最近の新進作家が好む表現は簡潔で単調なもの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その主な原因として若者の意識の変化やそれに伴う小説に対するニーズの変化が考えられた。その変化は1990年代の後半から始まり、その背景にはビデオおよびパソコンの普及という社会的事情があった。このような変化を最も明らかに示唆したのが各年度の審査評であったが、本稿は90年代後半の作品からそのような変化を見出せるか、実際の作品を取り上げて考察を試みた。そこから分かったことは審査評で示唆した変化を実際の作品が概ね反映していた事実である。96年、97年の作品は表現力の豊かな作品が多く、従来小説の文章的な趣を引き継いでいたが、98年からは、表現力を重視しないと示唆した審査評のコメントどおり、実際の作品においても徐々に変化が現れ始めた。平凡な表現をもつ作品が目立つようになり、さらに99年や2000年に至ると表現の単調化は一層進み、2013年の作品集に見られた表現の特徴と変わらない特徴を見せ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

本稿に先行の「韓国語教育におけるテストとしての韓国小説とその表現(其の一)」では、以下について議論した。本稿はそれに続く。

はじめに

1. 李文烈の作品に見られる表現的な特徴
2. 「2013年新春文芸当選作」における表現の動向
3. 審査評に表れた変化の動き

4. 1990年代後半の「新春文芸」当選作に見られる表現とその特徴

最近の若者、いわば新世代と呼ばれる世代の言語駆使の傾向を比較的に正確に捉えることができる小説としては「新春文芸」当選作品が考えられる。2013年という最近の作品集においてはその文章の構造や表現が単調であることは前節¹⁾で考察したとおりである。そしてそのような変化の原因を時代的なニーズの変化にあると指摘した。そのような表現の簡潔化、単調化は90年代後半から現れ始めたものと考え、各年度の新聞社による「審査評」を通じてそのような変化や変化の必要性を示唆していたことを確認した。このことから、90年代後半を変化の過渡期と捉えることができるが、そのような見解の正当性を検証するためには、実際の作品の文章を実例としてその表現の変化、つまり、表現の簡潔化、単調化の推移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本節では90年代後半の各年度の作品集の作品における文章をランダムに抜粋してそれをサンプルに表現の傾向を考察していく。

4-①. 1996年の当選作

1996年の当選作はプロ作家と比べると文章をつむぎ出すテクニックは欠けているが、新進作家であることを考慮すれば華麗なテクニックを駆使したと言えるし、実際に秀麗な表現を追及した痕跡が至る所で見受けられる。それはつまり、作品集の全般の作品が比喩や修飾語を駆使した感情表現に富んだ文章でで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まず『東亜日報』の当選作、「불란서 안경원」の一部を見てみよう。

처음 굴절검사기를 통해 할머니의 동공을 들여다 보았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온몸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할머니의 동공에는 이미 죽음의 지층이 깊이깊이 쌓여 있다고, 나는 무턱대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 뒤로 나는 할머니가 안경테를 맞추러 올 때 마다 어찌면 이것이 할머니가 세상에서 쓰고 가는 마지막 안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²⁾.

まず文章の構成は、接続語で繋がった複文が多いと指摘できる。また感情豊かな表現力を見せている。例えば「굴절검사기」を通じた視力検査から受けた感情を「오싹해지는 느낌」と表し、瞳孔を「죽음의 지층」に比喩するなど鮮明なイメージを作り出している。また「나는 무턱대고 그렇게」のように省略しても文章の意味上問題のない修飾句も用いられている。

では作品集のその他の作品についてもその例文を並べてみよう。

- ① 스가와라는 심장 저 안쪽에서부터 퍼져나오는 진동이 화끈한 열기가 되어 바지 앞 셔츠를 부풀리는 양을 대책없이 내려다본다. 젊고 싱싱한 피가 몸 안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고막을 터뜨릴 것만 같아 끔찍한 신음을 토해 낸다³⁾.
- ② 박순경도 추위에 그대로 굳어 버릴 듯한 얼굴의 미소를 지우고 손을 시린 볼로 가져가 두어 번 아래위로 문지르고 이어 땀이 찬 단화 속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다가 시멘트 바닥을 툭툭 두드렸다. 너무 깨끗하여 부서질 위험이 있는 뒷굽의 소리를, 살얼음장모양 붙어온 바람이 베어버리곤 진입로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⁴⁾.
- ③ 해직되고 나서 아이 우웃값이나 될 만큼의 생계보조비를 받을 때에도 남편은 전교조 사무실에 매일 출퇴근을 했다. 현직교사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선거 때에는 광역시 의원에 출마한 조합원을 위해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 현직교사들을 상대로 수지침 강습을 하고 … 남편은 한동안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매달 벌어도 교사 월급이란 게 네 식구 살기에 빠듯한데 수입이 없는 도시 살림이란 게 어항 속을 들여다보듯 흰한것 아닌가⁵⁾.
- ④ 변소에 다다르자마자 급하게 일을 보았다. 오줌줄기가 힘들게 열린 출구로 시원하게 빠져나오며 온몸의 경직된 신경을 풀어주었다. 그 좁은 방광에서 해방된 오줌이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가볍게 몸을 부르르 떨게 했다⁶⁾.
- ⑤ 천식 걸린 노인네처럼 그르릉대기만 하던 버스는 날 내려 놓고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선산 쪽으로 길게 난 고갯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김푸른 바탕에 흰 페인트로 찍어진 ‘한국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늦봄 노염 아래서 자글자글 끓고 있었고 그 밑에 길쭉하게 그어진 화살표를 따라 시선을 옮기던 나는 간밤의 숙취와 오월 하순의 그 쨍쨍

한 햇살, 그리고 아지랑이가 부글대는 논밭 멀리로 산모퉁이로 감고 이어지는 황톳길을 바라보며 잠시 막막해졌다⁷⁾.

①は主人公の興奮を心臓の奥から沸いてきた熱気と表現されている。また若者のみなぎる情熱に関しても新鮮な血が体の中を駆けずり回っていると表現している。したがって直接的な表現よりは隠喩的な表現が多いことが分かる。②は、地面をブーツでたたく様子を足の指を動かしながら地面を「탁탁」と叩く擬音語で表現している。厳しい寒さを鮮明なイメージで共感させる役割を果たすものと言えよう。さらにその音を「너무 깨끗하여 부서질 위험이 있는」という視覚的な比喩法を使用しており、通り去る風の様子も感覚的に表現している。③は長文の特徴を見せている。その長い一文は、複数の文章が読点と省略記号で繋がっている。また「우웃값이나 될 만큼의 생계보조비」、「어항 속을 들여다보듯 흰한것」という比喩表現も長文を手助けしている要素として作用している。④は小便が出るまでの一連の動作を、メタファーなどを用いた巧みな表現で表している。尿道を「힘들게 열린 출구」と例え、そこから排尿されるものを「快感」とであると語っている。また残りの尿が狭くなった膀胱から出る尿は体まで震えさせるとしている。この一連の動作を表した表現は優れたメタファーによるものである。⑤も優れた表現力を見せていると言えよう。バスのうるさいエンジン音を「천식 걸린 노인네처럼」、「그르릉대기만 하던」に例えることによって田舎道を走る古いバスというイメージを鮮明に浮かばせている。そして「툭툭」、「자글자글」、「쨍쨍한」、「부글대는」といった独特なオノマトペを駆使しており、韓国語における一般的な擬態語とも少し異なる表現として独創的な雰囲気を作り出している。

4-②. 1997年の当選作

1997年の作品集に収録された当選作は、2013年の作品集を髣髴させる作品も多少は見られるが、全般的には前年度の作品に見られたような感情豊かな表現力を見せている作品が多い。つまり、表現力を重視した作品が主流を成していると言えよう。まず「유쾌한 바나나씨의 하루」という作品の例文から見てみよう。

계명 소극장으로 향하는 327 번 좌석버스 안에서 나의 상상은 바나나에서 콘돔으로, 다시 콘돔에서 바나나로 끊임없이 이어졌고, 나는 그 둘이 이뤄내는 엄밀한 장면을 떠올리며 마치 큼직한 뼈다귀를 발견한 ‘스누피’ 마냥 연방 멀건 웃음을 흘렸다.

솔직히 나는, 가끔 주위의 누군가가 이 기발한 상상을 훑쳐보고 있거나 앓은가 해서 몇 번씩이고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물론 그 상상은 유쾌했고 비유는 참으로 감미로워 다른 누구와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나만이 계획한 그 비밀스런 작업을 스스로 행해 보기도 전에 그 누군가에게 발각되어 버린다는 것은 예민한 나에게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었다⁸⁾.

「기발한 상상」という主人公の内面の意識はバナナからコンドームへ、そしてスヌーピーへと繋がる。さらに他人に発覚されることを心配するという心境にまで繋がる。そのため、一つの段落全体が一文で構成されるという冗長な文章の様子を見せている。続く文章も「비밀스런 작업」という悪戯を考えている主人公の興奮した心理状態を表現しており、前の

文章と同様の表現的特徴を見せている。これらの文章は、複数の文章が接続語で繋がっている複文構成の特徴を見せるもので、多くの修飾語を伴うものである。

ではその他の作品における例文も羅列してみよう。

- ① 가게 안이 배가 갈린 채 해부대 위에 널브러진 생물처럼 구석구석 흰하게 드러나자 그제서야 눈은 온기를 찾은 것 같았다. 은목은 반사적으로 감았던 눈을, 다시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中略）

가게의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푸른 빛에서 까만 빛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있었다. 하늘의 어딘가는 푸르고, 어딘가는 검고, 어느 곳은 푸르지도 검지도 않고, 또 어느 부분은 푸르기도 검기도 했다. 여기저기, 푸른 빛과 검은 빛의 사투의 흔적인 듯, 피 같은 붉은 노을만이 사라져가는 푸른 빛의 종말을 처참히 보여줄 뿐이었다⁹⁾.

- ② 날마다 벽에 걸어두고 보아온 달력 속 풍경 같은 모습을 준희는 담벼락에 팔을 괴고 서서 오랫동안 바라본다. 마치 그걸 보기 위해 먼길을 온 것처럼.

머리에 수건을 쓴 아낙은 날이 꼬무레해서야 한 소쿠리 가득 넘실대는 봄동을 이고 문간을 들어선다. 아낙은 소쿠리를 받아내리는 준희를 향해 갓 뽑은 봄동처럼 푸른 웃음을 짓는다¹⁰⁾.

- ③ 그러나 그러한 불명확한 지점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충분히 대리만족이 가능한 것이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섯 살 터울인 동생을 배에다 숨겨둔 채 아직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으므로, 그 뱃속을 열고 들어가 나날이 어머니의 배를 부풀리는 동생과 얘기하고 싶어한 그 즈음이었을 것이다. 웬일인지 그 날따라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는 전날 언니의 생일로 케이크에 꽂아두었던 이미 반 정도는 불에 녹아 몽땅해진 서너 개의 초에 불을 붙여놓고 놀고 있었다¹¹⁾.

①はメタファーを用いた優れた表現が目立つ。店の中の様子を「해부대 위에 널브러진 생물」に、空色の青色と黒の調和や対立を「사투의 흔적」に例えている。さらにその青色は黒に負け、凄惨に終焉を迎えるという回りくどい表現も用いている。②は主人公が眺める風景を「벽에 걸어두고 보아온 달력 속 풍경 같은 모습」、「갓 뽑은 봄동처럼 푸른 웃음」と、長い比喩法を用いた表現となっており、「날이 꼬무레해서야」、「넘실대는」などの感情的に解釈される表現が目立っている。③の場合は兄弟を身ごもった母の情報に関する文章とお腹の中の兄弟と話したがる話者の情報に関する文章、さらに「그러니까」という副詞を介した敷衍説明によって非常に長い文章になっている。また「妊娠」したことを「배에다 숨겨둔 채」と表現し、その赤ちゃんの成長の様子を「배를 부풀리는」と表現している。そして遊びの道具として使われた「蠟燭」という名詞を複数の連体形で修飾している様子も見せている。これらの表現は事実を直接的に表しているのではなく、比喩法による間接的な表現であると言える。

一方、この年の当選作の中で一つ注目したいのは、上記の例文のような感情豊かな表現法を基本にしていながらも部分的に簡潔で冷徹な表現を併用している作品が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次の例文を見てみよう。

요즘에는 도끼나 정 같은 도구 대신 전자봉이란 것을 사용한다. 그 전자봉을 소의 정수리에 갖다 대면 소는 구차한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사해 버린다. 인간 역시 일개 짐승의 끈질긴 생명력이 보여주는 일련의 불유쾌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 전자봉, 그야말로 합리성을 극대화한 편리한 물건이다. 소의 죽음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는 그 순간순간의 편리함 속에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 따위는 과감하게 생략될 수 있다. (中略)

예상대로 아버지는 거기 있다. K는 잠시 망설이다가는 안으로 들어선다. 아버지는 이미 벌겍게 취해 있다. 그 모습은 어린K의 머릿속, 벽면 한 쪽에 단단히 고정돼 있는 아버지의 초상화이다. 더러는 빈 술병처럼 탁자 위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다¹²⁾.

引用部の前半には「끈질긴 생명력」、「합리성을 극대화한 편리한 물건」などの比喩を用いた表現が目立つ。しかし、後半の文章は「벌겍게」、「빈 술병처럼」と、修飾語や直喩による表現も用いてはいるが、全体的に「父」が部屋で酔っている事実だけを簡略に表した表現と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簡略な表現は、話者の語り方にスピード感が加わることになり、事件の展開や人物の行動をスピーディーに描くことができる。審査評の考察から分かった表現法の変化の兆しは正にこのような文章を指しているであろう。言い換えれば、感情豊かな表現から乾燥した文章に移行しようとする兆候と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よう。

4-③. 1998年の当選作

この年の作品集における作品の全体的な傾向は平凡な表現が主流を成していると纏められる。平凡な表現とは正に中間的な特徴を有するもので、冗長で秀麗な表現でもなく、簡潔で単調な表現でもない、いわば文学作品的な趣のない日常生活で見られるようなごく普通の表現である。このことは2000年代以降の表現的なスタイルの過渡期的な特徴と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表現的な変化の始まりとしても捉えられる。これはこの年の審査評で指摘した「言語活用能力」に関する憂慮がそのまま実作で表れたと考えられる現象である。

では、実際の作品の例文をいくつか挙げてみよう。

- ① 금세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할 때 흠뻑거리리는 것은 그의 버릇이다. 그는 가만히 손가락을 뻗어 내 불을 튕기고는 피식 웃는다. 누구에게나 다정한 것도 그의 버릇이다.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단둘이 있으면 그는 나의 연인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가 잔뜩 취해서 언제고 내게 뽀뽀하고야 말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그도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믿었던 적도 있었다¹³⁾.
- ② 놀이터였던 그 너른 마을회관 앞에도 인기척은 없었다. 날씨 탓인가. 을씨년스럽게 남은 어구들과 폐선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 횃배 부른 아이들은 떠나갔고 어른이 되었을 것이다. 나 또한 떠났고 어른이 되었듯이. 그러나 그들은 어김없이 이곳을 기억하며 돌아올 것이지만 난 돌아오지 않으려 했던 점이 다를 뿐이다. 비워진 공터엔 간간이 폭폭한 바람만 드러눕다 일어섰다¹⁴⁾.
- ③ 실내는 침침했다. 그녀는 낮이 설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바닥의 슬리퍼들과 붓통과 이젤들에 발이 자꾸 걸리었고 화판의 모서리에 팔을 굽히기도 했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그 바람에 그녀의 더운 몸 냄새가 혹 나에게 끼쳐왔다. 그녀와 나는 침침

한 어둠 속에서 몸을 닦고 말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밑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던 먼지들은 그녀와 나의 몸에서 튕겨지는 물방울들로 인해 어지럽게 엉키며 공중으로 흩어 올랐다¹⁵⁾.

④ 가게 안으로 들어온 여자는 라디오를 켜다. 볼륨을 조정하고 나서 여자는 늘 그렇듯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다. 여자가 틀어놓는 라디오는 하루종일 클래식 음악만 나오다가 간간히 클래식 음악들보다 더 졸린 듯한 진행자의 목소리가 나오곤 하는 그런 라디오다. 그 클래식 음악 때문에 나는 늘 점심만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졸고 있다¹⁶⁾.

⑤ 지난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한 철을 보냈다고 말했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다. 대답은 뻔한 거짓말일 것이다. 그래서 묻지 않았다. 언젠가는 여행중에 모은 돈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을 찾아다니며 살 거라고 했다. 거기가 어딘지 찾지 못해 여행을 멈출 수가 없다고 했지만, 반드시 그런 곳은 있을 거라는 믿음만은 확고했다¹⁷⁾.

文章の表現力が重視されない代わりに洗練された素材や雰囲気を用いた内容が目立つようになったのが一つの特徴であるが、①はその代表的な例である。広告代理店勤務という職場の雰囲気や若いOLを主人公にしたことは最近のドラマなどでもなじみの設定である。しかし、文章の表現においては秀麗でも極端に簡潔でもない平凡なもので、「흠흠거리리는」などの修飾語を適切に用いる様子も見せている。②は単語選びの優れた側面を見せる作品である。「뿔뿔 부른 아이들」、「폭폭한 바람」などは荒涼たるものとなった過去の記憶を表現するのに適している。しかし、それらの単語が挿入されたとしても文章全体からすれば文学的な趣をさほど感じない文章になっている。③は、濡れた体を拭く登場人物の行動を積もっていた塵やほこりが舞い上がる様子を描くことによって表現しており、文章全体が比喩的な場面を作り上げている。しかし、表現の面では秀麗さを感じさせる単語は見当たらず、平凡な表現で淡々と語っている印象を与えている。④は観察者として女性オーナーの行動を、一定の距離を置きながら叙述しているため、語り手の感情が介入しない客観的な表現となっている。さらに「꾸벅꾸벅 졸고 있다」と、自分自身を観察しているような態度での叙述も目立つ。これは自らを客観的に観察している態度によるものであるが、このような客観的な表現が比喩や修飾語を敬遠させ、平凡な文章を作り上げている。⑤は、状況設定や語り方は洗練されている。例えば、彼女の過去はボールに包まれたままで、それを主人公が強引に突き止めようとしめない設定になっている。また、金銭や職業に邪魔されず、旅の途中に集まった金で安住の場所を探している。しかし、幻想的なイメージとは裏腹にそれを表現した文章は感情の排除された乾燥したものである。彼女の過去を知りたがる強い感情も見当たらず、彼女の目指す目標も漠然とした平凡さを見せている。

この年の作品集の作品に見られる表現の傾向は概ね以上のようなものであるが、前年度の作品と比べて表現における冗長さや秀麗さが大幅減少し、簡潔化が進行している様子を見せている。その代わりに斬新な素材、洗練された設定などが目立つように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傾向は時代的な変化の象徴であると考えられ、読者の好みの変化も物語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

4-④. 1999年の当選作

前年の作品集における作品が平凡な文章として、表現の冗長さや秀麗さをもったものでもなく、簡潔さや単調さをもったものでもない中間的な表現の作品が多かったとすれば、この年の作品は簡潔化や短文化がより進行した単調な表現の傾向を見せている。秀麗と言えるほどの表現を持つ作品はほとんど見当たらず、直接的で断定的な語り方をした簡潔で短い文章が目立つ。

まず、この年の作品の中で最も冗長と考えられる文章の例から引用してみよう。

- ① 색종이로 오려 붙인 붉고 푸른 꽃밭 한가운데 노랑나비가 날개를 펼친 채 사뿐 앉아 있고 그 날개를 요람 삼아 천진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이 그려진 놀이방 창문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¹⁸⁾.
- ② 누런 버뿌리가 치질처럼 내밀어져 있는 논들을 지나, 제 어미에게서 뛰어나와 흙속에 파묻힐 차례라도 기다리는 듯 차곡 차곡 쌓여 황톳빛으로 변해 가는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발목을 덮어 오는 숲사잇길을 돌아, 가을 가뭄 덕에 냇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개울물이라고나 해야 할 듯 바짝 말라 버린 시내를 건너, 그 마을까지 참 많이도 걸었었다. 그래서인지 피곤이 온몸을 나락으로 끌어내렸다¹⁹⁾.
- ③ 여자의 두피에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 울울이 엉겨 불결하게 보이고, 간밤의 화장을 지운 휴지와 안면의 각질을 안은 채 버려져 있는 팩의 잔해물이 뿌연 비닐막으로 다른 쓰레기들과 같이 버려져 있다²⁰⁾.

①は「사뿐」、「천진하게」などの修飾語を用いた長文を成している。しかし、このような箇所は引用文に限られたものであり、その以外箇所は事実だけを簡略に語っている簡潔な表現となっている。②も引用のところは非常に秀麗な表現を見せている。この作品がこの年の唯一の秀麗で冗長な表現を持った作品である。あらゆる比喩や修飾語を用いた鮮明なイメージを提示している文章となっている。審査評においてもこの作品を選定するのに躊躇いがなかったと述べており、稀に投稿された秀麗な表現の作品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③も事象の観察や話者の心象が調和を成して緻密な表現を実現している。しかし引用部以外の文章は短くてテンポの速い文章が連なる様子を見せている。

では、その他の作品に関しても例文を挙げてみよう。その多くの作品が短い文章を好みながら作品を断定的な叙述によるスピーディーな展開にさせる特徴を見せている。

- ① 그 시각, 나는 동백 여관의 2층 왼쪽 끝방에서 눈을 떴다. 방 안 가득 달빛이 고여 있었다. 달빛 아래, 싸구려 농 한 짝과 칠 벗겨진 방문과 고물 텔레비전, 주전자가 담긴 쟁반 따위가 보였다. 여관이었다. 나는 오늘 아침 9시에 이곳으로 들어왔다. 다들 출근하는 시간에, 밤을 지낸 나는, 그들의, 그들만의 방향을 거슬러 올라 동백 여관에 들었다. 아침 햇살 속에서 간판은 창백하게 떨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잠들었던가²¹⁾.
- ② 나는 천천히 집을 나섰다. 흰둥이가 내 뒤를 따라왔다. 마을을 지나 작은 동산으로 올라가면 마을 뒤로 강이 보인다. 그 강은 한참 더 흘러내려가 바다에 합류한다. 텅 빈 독을 걸으며 나는 왜 독으로 왔는가를 생각했다. 눈을 맞으면 풀릴지도 모른다

- 는 소원이 내게도 있었던가. 독을 걸으면서 나는 공연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²²⁾.
- ③ 나는 창문을 열고 옥상을 바라본다. 농 속에도, 나무 조각들 틈에도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다. 야옹, 야옹. 몇번을 불러 봐도 아무런 대꾸가 없다. 창문을 닫자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다시 창문을 열고 옥상을 내다본다. 여전히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다²³⁾.
- ④ 산부인과 문을 나서자마자 영양제를 맞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를 치워 낸 듯 후련하면서도 속이 허전하다. 이 상실감은 대체 뭐란 말인가. 변해선 안 될 무엇이 결코 원래대로 복구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처럼 서글프다. 중요한 어떤 것을 분실했을 때처럼 안타깝다. 나는 그것을 찾으러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갈 뻔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이인가, 모성인가²⁴⁾.
- ⑤ 열심히 따라오는 여자애를 난 멍하니 본다. 그냥 놔 두고 재빨리 가 버릴까. 이상한 날이다. 기이해. 나는 두 손으로 까칠한 얼굴을 감싼다. (中略) 여자애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길가에 쭈그리고 앉는다. 저 혼자 신이 나 있던 아이가 금세 조용하다. 한꺼번에 많이 먹은 게 속이 안 좋은 것 같다. 가만 다가가 여자애의 어깨에 손을 대자 여자애는 매정하게 흔들며 뿌리친다²⁵⁾.
- ⑥ 내일이 바로 그날이다. 아버지가 늑골에 심장을 찔려서 혈떡거리던 숨을 멈춘 날. 오늘 형과 소녀와 나는 집안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다. 어제 저녁에 그 제안을 한 것은 나였다. 그래서 소녀와 형은 오전에 일찍 시장에 가서 장을 봐 가지고 왔다. 몇 가지 음식을 직접 만들고 또 몇 가지 음식은 주문을 할 것이다. 고추 잡채와 치킨 같은 것들²⁶⁾.

①は主人公の置かれた状況説明がほとんど主語＋述語の形を取っている。そのため、ほとんどの文章が単文構成であり、修飾語もほとんど用いられていない。さらに「여관이었다」のようにきわめて短い字数でできた一文も存在する。現在形の叙述によって内容においても先日旅館に入った主人公の断絶的な意識を表現することができ、現在の出来事だけを早いテンポで展開させている。②は話者が家から出た事実、犬が後をついた事実だけを簡略に表現しており、村の情景に関しても飾ることなく目に見える大まかな情報だけを簡略に表現している。ここでも叙述の時勢は現在形を取っている。③も「바라본다」、「들린다」、「내다본다」と主人公の行動だけを羅列しているが、その一連の行動を簡潔な文章で羅列している。そのため、余計な感情や主観は排除され、人物の連鎖的な動作だけが速いテンポで進行され、画像を見せるような客観的な表現となっている。④は落体手術直後の女性の内面を表したもので、「内的独白」の一種と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在来心理小説に見られる縦横無尽に飛び交うような心理を表してはいない。そのため、複雑な心理を表せず、客観的な事実を簡略に表すのに止まっている。⑤も③同様に行動の連鎖を短い文章で表現しているが、主人公の独白も叙述に溶け込んだ形を取っている。特にこの独白に当たる部分が非常に短い文章で構成されているため、主人公の迷いを生々しく見せる効果を得ている。しかしながら、文章の構成は単文が多く、単調な表現となっている。⑥は推理小説を髣髴させる語り方をしており、短くて断定的な表現が目立つ。一切の感情挿入は見当たらず、冷徹な表現となっている。早いテンポによる緊迫さが伝わり、表現の力強さも感じ取れる文章である。

以上まで99年の作品の表現の実例を挙げてみたが、前年の作品と比べても表現の簡潔さや単調さが目立つようになったと言えよう。冗長や秀麗な表現を持つ作品が全くないわけでもないが、その数は少なく、さらにそのような表現さえも作品全体にわたった表現というよりは一部を占める表現に止まっていた。また短くてテンポの速い文章は、そのほとんどが現在形を用いているケースが多かった。

4-⑤. 2000年の作品

2000年という年は21世紀を迎えるために様々な要求事項が唱えられた時期であった。小説においてもそのような要求事項が唱えられたが、前節で考察した審査評での指摘のように新しい世紀や時代が必要とする小説創作の必要性が唱えられた。新しい時代の要求、あるいはそれに答えるための新しい小説は、その必須要素として小説離れがちな若者を食い止めるための工夫を凝らした作品の必要性であった。彼らの要求に互応するためには読みやすい作品が必要であり、文章や内容ともに複雑な要素を排除したシンプルな作品が必要であった。したがって、この年の作品における全般的な表現の特徴は単調、簡潔、直感的、断定的といった単語で表せるような表現が目立つ。以前の作品が見せたような回りくどい表現はほとんど排除されているのである。

では文章の実例を羅列してみよう。

- ① 형이 죽은 건 두 달 전이었다. 그날 나는 형과 함께 있었다. 회사 근처 작은 주점에 서 동그란 철제 탁자를 사이에 두고 형과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 내가 빈잔에 소주를 채워주었을 때, 형은 잠깐 전화를 걸고 오겠다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²⁷⁾.
- ② 그 무렵 아버지는 매일 술로 살았다. 그것만이 오직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라도 되는 것처럼 연일 술병을 붙들었다. 그러나 술은 술을 부르고 결국엔 파멸을 부른다는 것을 아버지는 망각한 듯했다²⁸⁾.
- ③ 어느 날 밤이었다. 간밤의 음주로 갈증을 참지 못해 잠이 깬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멈칫했다. 아내가 어둑신한 거실 한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물들인 붉은 머리로 울고 있는 아내는 집배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되어온 소포처럼 엉뚱한 곳에 부쳐져 있는 듯싶었다²⁹⁾.
- ④ 하지만 그것은 정말이지 최악의 경우이므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물론 장점도 있었다. 증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면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기 때문이었다. 독서와 음반 수집, 비디오 감상, 컴퓨터 채팅, 인터넷 접속, 낙서 등 종류도 다양했다.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이라고? 물론. 그렇다. 그건 혼자 시간을 보내는 혹은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이다³⁰⁾.

2年前の作品と比べて一文一文の長さが大幅短くなっていることは一目瞭然である。その最大の理由は事象を表す際に複雑な表現を避け、簡潔さを求めたためであろう。さらにその中には直感的で断定的な表現を愛用している作品も目立つ。例えば、「그날 나는 형과 함께 있었다」、「누구나 다 하는 것들이라고? 물론. 그렇다.」は最も代表的な例であろう。そこには一切の比喩や修飾語が用いられておらず、「죽은 건」、「그건」などの縮約した表現も用いられている。

一つ注目したいのは、上記引用文にも「술로 살았다」、「잘못 배달되어온 소포처럼」のような比喩法が用いられていることである。そのような表現が挿入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短くて単調な文章となっているため、感情の面において物足りなささえ感じるほどであるが、その原因は表現力の変化によるものであろう。

表現力の変化とは、複雑で感情豊かな表現よりは単調でクールな表現を好む方向への変化で、パソコンやビデオの普及という時代性と密接な関係をもつと見られる。シンプルでスピーディーなメディア媒体への馴染みの反映として小説の表現においても短文による直感的で直接的な表現を好む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表現の変化は「格好よさ」を追求した結果でもあるが、作品の題材選びからも洗練されたものを追及している。例えば、③の赤く染めた妻の髪色、④のパソコンのチャットが代表的な例である。ところで、引用④は若者の趣味の定番がビデオやパソコンであることを明確に表した作品である。90年代後半から憂慮していた時代の流れや小説のニーズに関することはこの作品が示唆しているようにこの年になると既に定着してしまった文化であることが分かる。文章表現の簡略化は特にパソコンサイトで顕著に見られる現象で、中でもチャットで飛び交う文章は略語と密接に関係している。このような環境に慣れている若者を満足させるための小説はどのようなものになるべきか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

では、上記の作品以外の当選作についてもその表現の実例をいくつか羅列してみよう。

- ① 매일 하는 일인데도 진열을 끝내자 땀이 흐른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를 끌어서 물건 앞으로 두어 걸음의 공간을 두고는 세워 놓는다. 그래야만 가게 앞에 주차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있고 배달할 때에도 기동력이 있다. 나는 실장갑을 낀 손으로 안장 위를 두어 번 쓸어본다³¹⁾.
- ②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했다. 편지 내용은 오늘이라도 당장 내려가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할 만큼 간절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내려간다는 것도 좀 뭇한 일이긴 했다. (中略)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머니와 나를 이십여 년간 철저히 외면한 채 살다가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났다³²⁾.
- ③ 생의 반 바퀴를 되감아서 보고 왔다. 자취방으로 갔다.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안쳤다. 그와 같이 입고 잤던 잠옷이 의자 위에 걸려 있다. 잠옷을 한참이나 들고 섰다. 지금이라도 그에게 달려가고 싶다. 아니 전화라도 한 통 걸고 싶다³³⁾.
- ④ 사랑이라는 주제를 찾아본다. 어떤 그림은 몽크의 절규처럼 아비규환의 지옥 한구석을 훑쳐본 자의 얼굴을 그려놓는 듯 어둡고 음울하다. 벌어진 입과 눈, 눈은 공포와 공허감으로 가득 차 있다. 입 속은 어둡다³⁴⁾.
- ⑤ 그리고 작은 가방에 하루치의 짐을 챙겨 수정과 함께 진도로 내려왔다. 내려오는 동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지 하면서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진도에 가는 것이 야유회라도 되는 듯 일부러 들떠 있는 수정과 나의 거짓말을 깨고 싶지 않아서였다. 진도에 가기 전이라도 내내 막대유리처럼 가늘고 위태로운 즐거움일지라도 누리고 싶었다³⁵⁾.
- ⑥ 살에 쫓는 첫 땀. 나는 이 순간을 가장 사랑한다. 숨을 죽이고 살갗에 첫 땀을 뜨면 순간적으로 그 틈에 피가 맺힌다. 우리는 그것을 첫 이슬이라고 부른다. 첫 이슬이 맺힘과 동시에 명주실이 품고 있던 잉크가 바늘을 따라 내려온다³⁶⁾.

①は現在形の叙述である。もしこの文章が三人称の話者による叙述だとしたら、主人公の行動を観察する表現となるため、単調さは感じにくくなるが、一人称の話者によるものであるため、主人公の感情が完全に排除された、自らの行動を客観的に眺めた単調な表現になってしまう。つまり迷惑駐車に不安がっている複雑な心境は一切表現されず、客観的な事実だけが簡略に表現されているだけである。②は「절저하게」などの修飾語も見られるが、全体的に文章が短く、単調な表現となっている。さらに「좀 뭇한 일」、「아버지는 그런 사람」のように詳細に表すよりは語り手自身の理解に止まってしまう表現の特徴も見せている。③も過去の記憶を「생의 반 바퀴를 되감아서」のような比喩も用いられているが、それ他の文章は飾り気のない単調な表現となっている。特に極端に短い文章で一連の動作を羅列しているだけであるため、余計な感情表現は一切排除され、テンポの速い行動の展開を見せる。④の表現も同様のことを言えよう。絵を見て考えている際の内面を、「몽크의 절규」、「아비규환의 지옥 한구석을 훑쳐본 자」などの二重の比喩を用いて顔の陰鬱さを描いてはいるが、それ以外の文章は単調さを見せている。そして「그러논」のように短縮形の表現も見せている。⑤も「야유회」、「막대유리」の比喩は用いられているが、元の意味を際立たせる効果までには至っていない。また電話をかけなかった理由を「전화를 걸지 않았다」の後に位置させ、表したいことを二つの文章に分けて表現している。このことは行動や理由を表す文章が短くなり、そのような多くの短文が並列される原因を作っている。⑥は現在形や単文を用いて刺青の瞬間を表している。針を刺した瞬間の血がにじむ様子などが現在形で表れているため、早いテンポで刺青の様子が展開されている。したがって語り手の感情は全て排除され、目に映った現象だけが描かれる様子を見せている。

5. おわりに

韓国小説の文章における表現の傾向は既成作家ほど長文で秀麗な傾向を見せ、特に李文烈のような作家は様々な表現的なテクニックを駆使して感情豊かな文章を作り上げていた。しかし、それとは反対に新進作家、特にその代表である「新春文芸」に当選した作家たちの作品における表現の傾向は、簡潔、単調、短文、単文といった特徴を持つものであった。ただしこれは2013年の作品集に見られる傾向で、全ての新進作家における表現の特徴ではない。以前の時代の作品は、これとは異なる表現法を用いたと判断し、その変化の境を1990年代の後半であると考えた。

90年代の後半を表現変化の過程と捉えた理由は①21世紀を目前にした時代的な背景、②ビデオやパソコン普及の絶頂期、③小説における時代的な要求の変化という三つの要因があったからである。このような見解の根拠として最も信頼性をもつのが各時期の審査評であり、それは各年度の作品に要求していた事項が何であったのかを見せていた。

審査評から読み取れた小説への要求事項とは、まさに新時代を迎えるために進むべき作品の態度を示したもので、表現力を重視する審査の割合が年々低くなる結果となった。そして2000年に至ると表現力はもはや問題にならないレベルになっていた。このような変化の原因をパソコンやビデオの普及から求めようとするコメントも数多く見られたが、実際の作品の実例を検証した限り、非常に説得力をもつ見解であった。

90年代後半の作品の実例の検証においては、その表現の特徴が審査評で示唆していた事

実を忠実に反映したものであった。96年、97年までは秀麗な文章、豊かな感情表現などの表現力を重視したコメントが各審査評の至る所に散在していたが、実際の作品においても概ね複文構成による秀麗な表現をもつ作品が大多数を占めていた。そのような表現が変化を見せ始めたのは98年からで、秀麗、冗長さが軽減されて平凡とも言える文章が目立つようになった。その一方で、簡潔な表現とともに単文を好む傾向、単調な表現も現れるようになったが、99年になるとよりそのような傾向が進み、2000年に至るとほとんどの作品がそのような表現を好むようになっていた。2013年の作品集に見られた特徴である簡潔、単調、即興的、テンポの速い文章といった特徴をほぼそのまま見せていた。

このような事実から予測して、タブレットやスマートフォンの普及が加速し、それに伴う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やツイッターなどの普及は、人々の意識をより単調化させるものと見られる。文章による表現形式をもつ芸術である小説も、それを読む読者層の更なる読書パターンの変化に合わせて現在よりもさらに表現の単調化が進行すると予測されるのである。

韓国語小説の表現に関してその良し悪しを一律的に断言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秀麗で感情豊かな表現の場合は鮮明なイメージ提供などによって読者の感情を刺激し感動を与えやすい。逆に単調で乾燥した表現の場合は直感的に物語の展開が把握でき、作品の全貌を理解しやすいというメリットがある。韓国語教育におけるテキストとしてこれらの小説を採用する際には、教育の目的に合わせた作品選びが条件と考えられる。韓国語の文章構造の理解を目的とする授業の場合は平凡な構造をもった後者をテキストに選択したほうがよかろう。その文章に用いられた単語的な意味が理解しやすくなるし、文章全体の意味も理解しやすくなる。そして作品の全体的な内容も理解しやすくなるため、短期的な学習においてその効果は期待できるものであろう。その反対に前者のような秀麗な文章構造をもった作品をテキストにする場合は、比喩法などが用いられた表現による単語の意味把握自体が困難な場合も生じる。さらに比喩などによる表現が長く連なった文章は、文書全体の意味や意図を把握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もある。さらに作品全体の内容を理解することも非常に難しくなる。そのため、学習効果が得るためには相当の時間を必要とする。その代わりに複雑に絡まった韓国語文章の仕組みを理解するきっかけが提供できる。さらにそのような複雑な文章の意味をつかむためのトレーニングにもなるため、韓国語的な思考能力を高める効果が期待できる。韓国語的な思考能力とは、より深く韓国人の思考構造を理解することを意味する。さらにそこに用いられた様々な複雑な表現は、単語学習の領域を広げてより深層的で広範囲に及ぶ単語を接する機会を与えると考えられる。

注

- 1) 「韓国語教育におけるテキストとしての韓国小説とその表現（其の一）」、『人文社会科学研究』第29号、2014年9月。
- 2) 조경란, 「불란서 안경원」, 『1996년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1』, 예하, 1996年, 308頁。
- 3) 김조숙, 「원숭이와 페허」, 『1996년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1』, 同上, 72頁。
- 4) 김도연, 「잠시 김문 있겠습니까」, 『1996년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1』, 同上, 98頁。
- 5) 정우련, 「서른네 살의 다비장」, 『1996년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1』, 同上, 188頁。
- 6) 박재윤, 「시지프스의 기타」, 『1996년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1』, 同上, 209頁。
- 7) 허철웅, 「탁류」, 『1996년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1』, 同上, 260頁。
- 8) 우광훈, 「유쾌한 바나나씨의 하루」, 『1997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1』, 예하, 1997年, 148～149頁。
- 9) 김현영, 「숨은눈」, 『1997 신춘문에 당선작품집 1』, 同上, 116頁。

- 10) 장정옥, 「해무」, 『1997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1』, 同上, 266頁。
- 11) 김지은, 「살이 붙지 않는 잠」, 『1997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1』, 同上, 312頁。
- 12) 김상영, 「어떤 축제」, 『1997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1』, 同上, 290~291頁。
- 13) 한지혜, 「외출」, 『1998년도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1』, 同上, 97頁。
- 14) 이상섭, 「슬픔의 두께」, 『1998년도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1』, 同上, 114頁。
- 15) 김도연, 「철계계단이 있는 천변풍경」, 『1998년도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1』, 同上, 139頁。
- 16) 강영숙, 「8월의식사」, 『1998년도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1』, 同上, 164頁。
- 17) 이상인, 「소금길」, 『1998년도 신춘문예 당선작품집 1』, 同上, 192頁。
- 18) 노명옥, 「꿈꾸는 환절기」, 『1999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프레스21, 1999年, 82頁。
- 19) 송재창, 「출분기」, 『1999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110~111頁。
- 20) 은미희, 「다시 나는 새」, 『1999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217頁。
- 21) 구경미, 「동백 여관에 들다」, 『1999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9頁。
- 22) 김지윤, 「절뚝거리는 세월」, 『1999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57頁。
- 23) 윤성희, 「레고로 만든 집」, 『1999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202頁。
- 24) 진명정, 「숫자세기」, 『1999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291頁。
- 25) 김은주, 「그리운 꽃」, 『1999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373~374頁。
- 26) 김도연, 「소년, 소녀를 만나다」, 『1999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495~496頁。
- 27) 황광수, 「폭염」, 『2000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프레스21, 254頁。
- 28) 박성천, 「무지리의 새」, 『2000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316頁。
- 29) 송은상, 「환지통」, 『2000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345頁。
- 30) 김종은, 「후레시 피시 맨」, 『2000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435頁。
- 31) 이영임, 「일곱 말 가웃」, 『2000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9頁。
- 32) 이경아, 「나비가 사는 집」, 『2000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35頁。
- 33) 이수정, 「절반의 무당」, 『2000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83~84頁。
- 34) 이지영, 「타인의 얼굴」, 『2000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92~93頁。
- 35) 편혜영, 「이슬털기」, 『2000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137頁。
- 36) 천운영, 「바늘」, 『2000 신춘문예 당선 소설 작품집』, 同上, 166頁。